

뉴욕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과 반도체 우려에도 증시 상승



미국시황/ESG 김윤정 _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hyseong@ls-sec.co.kr

3 대지수 상승, 다만 반도체와 빅테크간 엇갈린 방향성

- 미 증시는 DOW +0.29%, S&P500 +0.38%, NASDAQ +0.62% 상승. 통신서비스, 임의소비재 강세, 기술주, 유틸리티 약세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2.1%. ASML의 실적 발표로 반도체 고점론 우려가 지워지는 듯했음. 그러나, CFO의 일부 장비 가격 인상 시사 발언과, 중국 창신메모리(CXMT) 공모가 확정으로 시장 예상치 2 배에 달하는 약 85.5 억 달러의 규모 자금조달시 중국 반도체업계의 공격적 자본 투입을 통한 메모리 공급과잉 우려. 한편, 애플의 창신메모리 칩 테스트중이라는 보도도 마이크로(-8.2%), SKHY(-9.0%) 등 투자심리 제한

뉴욕주 데이터센터 건설 모라토리엄 조치, 전력기기 약세

- 미국내 50 개주 중 최초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 정책. 50MW 급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대형 데이터센터 건립시 관련 환경허가 최대 1 년 한시 유예.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수자원, 전기에너지 사용량 폭증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과 천연자원 고갈, 전력망 부담 등 뉴저지 주민 위협 영향 평가 예정. 기존 건립 운영중인 데이터센터 133 개소에 영향은 없음
-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에 정치적 이유에 의한 끔찍한 결정이라며 비판.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세수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하는 한편, 가동에 따른 물과 전력비용은 스스로 부담해 일반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반박

CPI 이은 PPI 둔화에도 여전한 인플레이 경계감

- 6 월 PPI YoY +5.5%, MoM -0.3% 전월·컨센 하회. 휘발유 -12% 등 앞서 CPI 지표와 마찬가지로 국제유가 하락 영향. 6 월 근원 PPI YoY +4.7% MoM +0.2% 전월비 상승, 컨센은 하회
- 7 월 베이지북은 데이터센터, 기계, 방산 등 주문 확대로 경제활동이 완만한 증가했다고 평가. 다만, 연료가격 상승에 의해 다른 부문의 소비지출이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유가발 인플레이 경계 지속
- 인플레이에 대한 연준의 경계 지속. 쿡 이사는 인플레이 상황 전개를 조금 더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금리인상 시사 발언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AAPL	애플	+4.0%	중국 당국의 신규 생성형 AI 제공업체 목록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포함되며 중국 내 규제 장애물 해소 소식에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 AI 규원에 탑재한 애플인텔리전스 출시 승인. 한편 자체 M2 울트라 칩의 고도화된 AI 워크로드 처리 한계와 차세대 AI 서버 칩 발트라 출하 지연으로 엔비디아 의존 불가피해짐에 따라, AI 반도체 기업 인수를 물색 중이라는 소식 보도
ASML	ASML	+2.2%	실적발표. 2분기 매출 및 EPS 모두 컨센 상회하는 호실적 발표. 연간 매출 가이드스 360~400억 유로→430~450억 유로로 상향,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가이드스 상향 조정. CFO는 Low NA EUV 장비의 잠재적 가격인상 가능성을 시사. 장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량 확대 계획을 제시
PYPL	페이팔	+17.2%	결제 기업 스트라이프와 사모펀드 어드벤처가 이달 초 페이팔을 주당 \$60.5, 총 \$53B 규모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는 로이터 보도에 주가 폭등
BLK	블랙록	+6.6%	실적발표. 어닝서프라이즈 및 투자기관 최초로 AUM \$15T 돌파 소식 발표에 주가 급등. 2분기 동안 AUM \$1T 이상 증가. 한편 래리 핑크CEO는 미국 주식시장 밸리가 추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 생각한다 언급. 새로운 기술에 의해 촉발된 기업들의 마진 확대와 실적 모멘텀 등 훌륭한 시장 펀더멘털을 목격하고 있다 칭언
MS	모건 스탠리	+0.4%	실적발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 및 순이익 기록. 스페이스X 등 대형 IPO 수혜로 인한 IB 부문 수수료 호조와 더불어 주식 트레이딩, 자산관리 부문 등이 실적 견인
JNJ	존슨앤 존슨	-2.7%	실적발표. 2분기 실적 호조 및 연간 가이드스 상향에도 주가 하락. 기존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스텔라의 매출 감소를 항암제 포트폴리오 호조로 상쇄하며 컨센 상회하는 2분기 실적 발표. 다만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영향에 주가는 하락
UAL	유나이티드항공	+0.5%	장 마감 후 실적발표. 시간 외 주가 -2%대 하락 중. 2분기 실적은 예상치 상회했으나, 높아진 연료비 가정에 따른 가이드스 컨센 하회에 주가 약세. 사측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연초 예상 대비 올해 약 \$6B 추가 연료비 발생 전망